

2023년 2학기 교양대학 글말교실 글말특강 (3회차)

교강사	오정근	강의제목	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는 말하기
학부(과)	미디어·광고학부 미디어 전공	학 번	20190561
이 름	장준하		
감상문	<p>가끔 그런 날이 있다.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날 말이다. 보통 이런 경우는 약속을 잡은 누군가가 아직 친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가 많다. 나는 계속해서 걱정한다. '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?', '기껏 시간을 내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돈과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면 어떡하지?'하고 말이다.</p> <p>이건 전부 방법의 문제다. 내가 첫 말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다. 그런데, 이 방법을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? 이 질문에 답을 하기는 어렵다. 오정근 교수님의 '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는 말하기'를 접하기 전까지는 말이다.</p> <p>말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라는 교수님의 말씀은 신선하게 다가온다. 말이 안 통하는 건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. 말이 잘 통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이고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는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. 내 마음을 먼저 열고 밝고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이다.</p> <p>마음가짐의 준비는 끝났다. 그다음은 무엇일까? 방법론의 시작이다. 인간은 소속 욕구/친밀의 욕구/ 인정의 욕구를 지녔다.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관계와 사회성이 필요하다. 이 점을 기억하고 예의, 매너, 호감, 존중을 지녀야 신뢰감으로 이어진다.</p> <p>질문을 잘 해야한다. 얕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. 듣는 것도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. 리액션, 공감, 지지, 격려, 축하 등 경청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.</p> <p>말을 할 때는 말하는 순서가 중요하다. 그래야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. What, Why, How가 바로 그것이다. Feel, Learn, Do는 무언가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 할 때 사용된다.</p> <p><자신있게 말하기> 수업과 <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는 말하기> 글말특강을 통해서 대화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되었다.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. 형식지가 암묵지가 될 때까지 의식해서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야 할 것이다. 행복하게 살며 나의 행복한 에너지가 주변을 밝게 물들이도록 말이다.</p>		

[기타의견]

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!